

‘비트코인 대통령’ 귀환에 7만6000달러 돌파… 연일 최고가

출렁이는 가상자산 운명

대선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 급등 투자자들, 연말 9만달러 돌파 기대감 4분기 추가 상승 가능성 투자심리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연말까지 9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54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전일 대비 9.43% 오른 7만603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7만5300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 14일 기록한 최고가(7만3750달러)를 경신했지만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소식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6만5000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개표 초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

면서 7만달러를 회복했고 당선이 확정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 기간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을 공언하면서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연말까지 9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맞물렸던 2016년과 2020년에는 대

선 이후 연말까지 각각 153%, 130%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4분기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다음 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말까지 100%넘는 상승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금융(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출시됐고 트럼프 당선인을 모델로 한 대체불가토큰(NFT)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9만달러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분석가 고탐 추가니는 “트럼프 승리 시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되찾을 것”이라며 “4분기 비트코인이 9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7개월 만에 1400원 돌파… ‘레드 스위치’ 기대감에 초강세

(공화당, 상·하원 선거서 압승 시나리오)

트럼프 효과, ‘킹달러’ 귀환

레드 스위치 가능성에 달러 가치 급상승 엔·달러 환율도 슈퍼엔저 수준 복귀 외환당국 “환율 과도히 변동 시 대응”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을 넘겼고,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상승해(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1.40원(1.54%) 오른 달러당 1401원으로 야간 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어 7



일 오전 장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며 환율은 달러당 140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박빙’이 예상됐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당초 예측보다 일찍 끝났으면서 ‘레드 스위치(공화당 상·하원 선거에서 압승하는 시나리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환율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앞서 내걸었던 공약(연방정부 재정확대·적대적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현 정부인 바이

든정부의 경제 정책과 큰 차이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 인상, 상품 제한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해리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도 지난 7월 ‘슈퍼엔저’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02엔(1.99%) 오른 달러당 154.63엔에 거래를 마쳤고, 이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엔화 가치 최저)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의 ‘킹 달러(달러 초강세)’와 올해 상반기의 ‘슈퍼엔저(엔화 초약세)’가 동시에 재현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도 지난달 자민당의 총선 실패로 금리 인상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 선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시장의)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인플레이 우려에… 美 금리인하 12월엔 멈출 가능성

트럼프 정책, 변수 될까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 신중모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6일부터 이틀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연준이 금리결정시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9월 기준 2.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였던 PCE 상승률은 11월 2.6%로 떨어진 뒤 10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목표한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냉기가 감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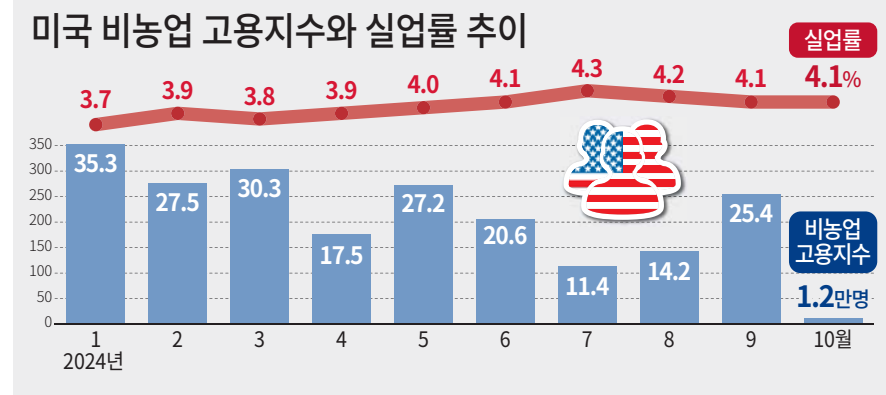
10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2020년 12월(-14만명)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10월 기준 4.1%다. FOMC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실업을 추정치는 상단기준 4.5%다.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일자리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란 판단에서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서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을 98.1%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금리인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공약이 빠르게 시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통상기업들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만큼 상품의 가격을 높인다.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민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추방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50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공석이 되면 기업들은 임금을 높여 직원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상승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12월부터는 트럼프 공약에 따른 물가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동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